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제3회 PT&Critic (공개)
윤병주 <화성>

일시 : 2014년 2월 21일 (금) 오후 6:00 - 7:3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패널 : 강석호

기록 : 윌링앤딜링

* 성함을 알 수 없는 관객들은 '관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윤병주 :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 <우사단>은 이번 전시 <화성>을 하면서 제작했던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나오지 않은 시리즈이지만 저의 작업 성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제가 1년 2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이태원 변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현상들, 벌어지는 사건들을 재미있게 여겨서 그 동네에 대한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부와 2부 작업이 상당히 다르게 보입니다. 1부 작업은 매우 사진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고 저널리즘에 가까운 사진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슬람사원 주변에 있는 풍경들과 상황들을 일일이 촬영을 하고 거기서 느낀 동네 간에 느낌을 다루는 사진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대부분 매스컴에 의해 형성된 생각이라든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과연 진짜인가? 그리고 그것을 모든 무슬림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격한 장면을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인식자체를 오해하게 만들었거든요. 무슬림하면은 대표적으로 테러라든지 그런 종류의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을 목격했을 때 바로바로 사진으로 촬영해서 약간 저널리즘 성향을 가지면서 의도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1부에 많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사진에는 특정 에피소드도 있지만,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을 즉석에서 섭외하던지, 그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촬영을 했는데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깨지면서 2부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진작업이에요. 저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없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냥 일반 동네에서 사는 주민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꼈던 게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찍는 동안 제게 몇 마디씩 질문을 해왔어요. '사진 찍어도 되냐?' 라고 물으면 '촬영해도 된다.' 그러면서 '여자 친구는 있냐?', '여자 친구 없다.', '여자 친구랑 잠자리는 자주 하나?' 등등. 대화 중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무슬림이라면 매우 종교적일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고 도리어 나한테 이런 사적이고 강한 질문을 했을 때 한국 사람인 내가 놀 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당황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의 전환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2부 작업이었습니다. 2부 작업을 설명하기 전에 1부에서의 작업에 대해 첨언하자면, 우사단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동네 길 이름이에요. 거길 '우사단로' 라고 하거든요. 과거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기우제를 지냈던 제단 이름을 우사단이라고 하고 마치 이 동네가 높은 구름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아마 우사단이 있었던 자리가 아닐까 해서 용산구에서 길 이름을 우사단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사단이 기우제를 지내는 어떤 신성한 장소였고, 그런 애기와 맞닥트려서 이슬람사원이 여기에 거대하게 위치한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결정적으로 이 동네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사진적인 약간의 연출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스냅사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1부 작업을 2~3개월 열심히 종군기자마냥 뛰어다니면서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서 2부 작업으로 넘어오는데 2부 작업의 시작은 이 전체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 내리기보다 그저 이 동네에서 저도 하나의 일개 구경꾼으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저의 위치를 바꾸게 됨으로써 보이는 시각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2부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부 작업의 경우 동시간대에 사진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대가 한 장소에 겹쳐서 표현이 되고, 대부분이 연출사진이되 제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게 아니라 카메라를 숨기던가 했던 거죠.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놓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무선릴리즈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의도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제스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얘기라든지, 크게 의미 없는 행동들이 이 동네와 어우러지면서 구경꾼으로서의 시선을 작업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일련의 사건을 서론과 본론, 결말이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 안에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들어가는 작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내러티브들을 조금씩 구성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연출사진이구요. 그래서 저 여자를 따로 촬영하고 저기 아줌마 따로 촬영하고 저 배경을 따로 촬영하고 제가 원하는 내러티브들을 조금씩 장면 속에 심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의도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진은 재미있는 것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얻어졌던 사진이었거든요. 이 여자의 경우는 섭외를 했지만 저 아줌마는 의도하지 않고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나서 사진에 담기게 된 거죠. 저는 사실 계단으로 내려가는 아래서 스트로보를 들고 터트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저희가 촬영하는 것이 기특했는지 제가 예의가 바라서 그랬는지 처음에는 촬영을 거부하시다가 나중에는 커피를 들고 오셔서 '커피 마시고 해.' 하셨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릴리즈를 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담긴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이 연결 되어 있고 들여다보면 이 옷이 밀리터리 룩인데 아래도 패턴으로 된 옷이에요. 멀리서 보면 저 상반된 느낌이라든지, 저 옥탑방과 저 뒤에 있는 탑이 주는 상반된 느낌들이 이 동네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었어요.

다른 사진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간에 촬영된 게 아니라 이틀에 걸쳐 촬영을 했는데 시계를 보면 4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 보이고 있는 장면은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은 공간에서 벌어질 수 없는 사건들을 연결함으로써 동네를 보여주는 방법이 제가 촬영한 방법입니다. 이 동네에는 '도우미 미용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역사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사단로에 있는 이슬람사원 근처 동네가 사실 옛날에 기지촌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공주들이 오랫동안 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프라가 많아지고 미용실도 많아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도우미 미용실' 이라고 써놓은 곳이 있기에 재밌게 생각하고 있고 옆에 바로 보광 여관이 있는 게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현재에는 그 도우미 미용실이 파마 전문이 되어버리고 보광여관은 더 이상 연인들이 찾는 장소가 아니라 무슬림들이 장기 투숙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어 그러한 변화에 반응하는 사진적인 재미도 같이 얻게 됩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을 해요. 텍사스촌이라고 해서 이태원 자주 놀러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몸을 파는 직장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사진촬영이 당연히 허가된 곳이 아니죠.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숨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캡처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텍사스라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 작업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태원이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할로윈 날에 촬영을 했는데 사진 한쪽에 위치한 트랜스젠더바라는 뜻밖의 주어진 소스들로 인해서 이 동네에 특이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과 밖을 이분법으로 해서 이슬람 사원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이라든지 시각을 달리해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풍경들이라든지 안에 야드(마당)가 있는 이런 동네 풍경도 보여주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있음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이 장면은, 주로 외국인이 사는 동네에는 큰 위성안테나를 갖다놓고 그 나라 위성으로 TV를 시청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를 찍었을 때 달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예요. 무슬림들이 음력을 써서 그런 상징성이 보이는 촬영을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사진적인 작업으로 하는 <우사단>이라는 작업입니다.

이어서 <화성>시리즈 작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전공하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작품의 방향성을 잡는 중간 단계에 있고, 오늘이 중간점검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3년 동안 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오랜 시간 투자한 것은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가서 촬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방향이 바뀌는 그런 과정 중에 중간점검을 하게 되는 전시를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화성이라는 곳을 접근하게 되었어요. 텍스트에 써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우사단>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쯤에 1년 반 정도 경기도 화성시에 살았는데 일을 서울에서 하게 되면서 출퇴근을 화성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부모님은 한국에 안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이런 화성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 말고도 기본적으로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스컴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든지 미디어 안에서나 사회이슈로서 만들어진 화성이라는 이미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서 발생하는 어떤 이미지가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 출퇴근 하는 버스 안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을 때 화성이라는 곳이 수도권이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난개발 되는 공사현장들이 많은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현장들을 바라보고 2009년 무심결에 '참 화성이 화성 같다'는 말이 제 마음 속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 말이 나중에 불현듯 떠오르면서 학교에서 정식공부를 하면 이에 대한 작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2011년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때는 화성과 화성이라는 동음이의어에 대한 텍스트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런 오래된 공사현장의 장면을 마치 그랜드캐년같은 느낌이나 어쩌면 우주의 화성갈기도 한 메이킹 포토로 만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풍경작업의 경우 여러 장의 사진을 붙여서 파노라마로 만들게 되고 하늘같은 경우는 색깔을 바꾸는 장난을 좀 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들이 이번 전시에 나온 사진들처럼 이런 식으로 화성에 대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 줍니다. 나눠드린 작가노트에 적힌 들개에 대한 얘기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사진에서의 길이 오산을 향하고 있는 길인데, 그 당시에 여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들개들은 저를 둘러싸고 있고 이 뒤는 제가 갈 수가 없었고 도망가려면 뒤로 뛰어내려야 해요. 결말은 글로 쓰지 않았는데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어느 지방 어디 근처입니다.' 하니까 장난전화 같고, 경찰도 들개 20마리가 무슨 말이나 되냐고 하시고, 나중에는 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GPS 추적 가능하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라는데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스펀지라는 TV프로에서 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개는 절대로 물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개 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20분정도 쳐다보니까 지들끼리 놀더라고요. 그래서 한걸음씩 빠져나왔어요.

관객 : 20마리 중에 어떤 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윤병주 : 앞에서 20마리가 놓고 있었고. 저는 정면만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정면에 있는 개가 대장이었거든요.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처럼 화성의 단면을 우주의 화성 같은 느낌으로 가다가 현장의 느낌도 살짝 넣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규어가 연출된 사진은 제가 화성을 탐사하는 것을 기념화시키고자 했던 작업이었어요. 나사에서 진행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거든요. 나사에서도 어떤 위업을 달성하면 항상 피규어나 장난감들 아니면 브로마이드가 생산이 되는데 저도 화성을 탐사했다는 저의 업적을 이 녀석으로 하여금 상품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퍼즐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데, 지금은 일단 사진으로 액자에 걸려서 보여주게 되었어요. 이베이(ebay)에서 구매한 피규어들이 화성에서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취하게 되죠. 동영상은 RC car에 액션 캠을 설치해서 조종하면서 찍힌 작업입니다. RC car가 화성을 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어지는 장면들이고, 우주에서 송수신하는 사운드를 사용해서 페이크 도큐멘터리를 만들어 내는 거죠. 좀 더 비싼 RC car를 사면 더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이 조금씩 변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진적 작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개념적인 작업으로의 방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이미지 포토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NASA)에서의 진행 방식을 패러디 하거나 차용해서 나름대로의 경기도 화성을 보여주는 형식을 채택합니다. 저기 있는 텍스트는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그 텍스트 해석에서의 'Mars'를 'Hwaseong'으로 바꾸었을 때 말이 되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거든요. 실제로 나사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대부분 이런 식이거든요.(Hwaseong, 2013) 그 방식을 차용해서 경기도의 화성을 보여주게 되고, 이것은 그냥 바퀴자국이지만 이런 자국이 왜 여기에 있는지 보여주게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글이구요. 또 여기 화면의 수치는 면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설치 작업인데 설치라고 하기에는 그냥 제가 채집한 물건이지요. (Hwaseong-The Collection, 2013) 경기도 화성에서 발견된 오브제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분석합니다. 사실 고려대에 있는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한테 분석을 의뢰하려 했는데 바빠서 못했어요. 이 전시에서의 오브제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널려있는 돌인 화강암, 스티로폼, 그리고 아스팔트 조각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페이크적인 느낌을 여기에도 조금 심어 놓으려 노력한 것이, 마치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식으로 전시하여 제가 화성에서 채집한 물건을 탐사의 결과물로서 가지고 온 작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최근 작업입니다.(Exploration of Hwaseong_The Face on Hwaseong_2014)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1970년대에 미국의 바이킹 호라고 화성 주변을 돌던 위성이 촬영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속칭 'Mars Face'라고 해서 그 위성이 촬영한 사진에서 드러난

표면이 사람의 얼굴 형상을 닮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기 시작하지요. 외계인이 만들어 놓았던 형상이다, 아니면 화성에 고대 문명의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었다는 등의 구설수들이 한 2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석을 시작하고 고화질의 카메라가 생기고, 3D 분석까지 하게 되면서 그 인면암이 그냥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태양에 의해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이모티콘이나 사람의 형상, 구름의 형상을 가지고 풍선이라든지 코끼리라고 알아보는 그런 현상을 '파레이도리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은 사물을 머리속에 기억하는 것을 편리하게끔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것이 이모티콘하고 화성의 이런 인면암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키보드에서 존재하는 기호들인데, 그 때 제가 느꼈던 것이 화성암의 인면암을 가지고 우주의 화성을 해석할 때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주의 화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촬영하러 간 인공위성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갑자기 화성에 고대 문명의 뭔가가 산다든지, 외계인이 산다든지, 해석이 조금씩 파장되는 것이 재미있어서 저도 이 공사현장에 그런 기호를 그리게 되고, 그 기호를 보여줌으로써 이 지역을 조금 더 새롭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업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늘상 가는 공사 현장이지만 시각을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됨으로써 여기서 보이는 효과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치 회화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공사현장들의 위치나 배열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조금씩 실재를 바라보면서 저건 왜 저기 있을까라는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작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거기에 직접 가서 운동장 라인을 그릴 때 사용하는 석회가루를 20포대 정도를 열심히 뿌리면서 저것을 그렸어요. 그리고 헬리캠으로 600, 700미터 항공에서 촬영한 화면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흑백 사진은 사람의 얼굴로 인식하도록 방향을 돌려놓고 분석한 작업입니다. 두서 없이 작업의 에피소드 등을 얘기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스처는 화성을 탐사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경기도 화성 같은 위성도시의 개발현장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에 대해 의문을 갖고 그 개발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제가 변모해 가는 중간 단계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경 : 작업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작가분이 '어떻게' 찍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고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윤병주 : 사실 제가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변모를 겪고 있고 지금도 그 중간 단계라고 말씀 드렸는데, 초기 작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에 대한, 특별히 난개발 지역에 대한 비판

적인 시선이 많이 강했었습니다. 이렇게 팽배해져가는 도시 개발 속에서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런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주변에서는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사진으로 그것을 촬영하는 일이었으니까 그 장면을 우주의 화성처럼 보여주게 되면 이를 은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적나라하게 행동적으로, 아니면 그 동네에 침투를 해서 사회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성격에 맞게 웃기고 재미있게 이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진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의 작업에 대한 초반의 얘기는 사회비판적인 얘기가 강했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저는 사진을 탈피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 좀 더 다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되려 중간 단계에서는 나사에서 진행되는 방법을 개념적으로 차용을 해서 경기도 화성을 보여주는 방법, 관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개발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꼭 화성이 아니어도 되었고, 도시개발 현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옆에서 도시를 파헤치고 있는데 '아 그거 그냥 싫다.' 또는 '여기서 나중에 살 거니까 좋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풍경이 마치 어떤 때는 그랜드캐년처럼 보이기도 하고 만들어진 공사현장에서 주어지는 이미지들에 좀 더 힘을 싣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차용한 것이 나사의 방식에서 차용해서 보여주는 관점을 조금 달리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 마지막에 보여드린 저 작업인데, 아직도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이 동네를 이렇게 이미지 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침투를 하고 말 그대로 탐사/탐험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개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연구 중입니다.

허은경 : 그렇게 보면 작가 분에게 탐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가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이슬람 종교 사원을 걸어 다니시는 것이 어렸을 때 탐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방안에서 느낀 에너지는 어렸을 때 내가 놀이터에 가서 놀고, 구슬 줍고 깃발 꽂아 놓고 병정놀이 하고 돌로 무덤 만들고 저기가 적지냐 누가 악이냐, 이런 놀이를 하는 등등이 느껴지면서 거기까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탐험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해 모험하는 것이 더 큰 주제로 묶이면 아까 작품과 이 작품이 연계가 되면서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해' 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병주 : 그 전 작업, 우사단이란 작업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막상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오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아까 이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어린아이가 물총을 들고 저를 겨냥하고 있던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건데, 무슬림에 대해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에게 편파적인 시선을 갖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물총을 들고 있는 소년을 보는 순간 저는 '저거다.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해인지 어떤 단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 제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걸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테러를 연상하게 했구나.'라고요.

윤병주 : 그 전 작업, 우사단이란 작업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막상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오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아까 이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어린아이가 물총을 들고 저를 겨냥하고 있던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건데, 무슬림에 대해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에게 편파적인 시선을 갖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물총을 들고 있는 소년을 보는 순간 저는 '저거다.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해인지 어떤 단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 제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걸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테러를 연상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사진 뒤에서 반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 이것을 테러라고 생각했지?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 마스크로부터 주어진 생각이 아닐까? 사회 인식에 따라 당신이 이 이미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글썩요. 제가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기운 : 어떤 사진은 합성도 하셨는데, 저 스마일은 왜 직접 그린 건가요?

윤병주 : 사실 처음엔 땅을 파서 사람 얼굴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게 불가능하면 두 번째 쉬운 건 밀가루, 세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합성이겠지요. 그런데 리얼리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비싼 금액을 들여 항공촬영을 하는데 굳이 합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는 게 더 멋지지 않나요?

신기운 : 나사에 관한 자료를 많이 찾아 보셨을 텐데요, 나사에서 착륙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작이잖아요? 상당히 그런 것과 연결성이 있는데, 나사에서 대중들에게 던져 주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모두 다 믿으시나요?

윤병주 : 저는 어떤 이미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내놓는 기사나 자료들을 보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이것을 믿고, 안 믿고 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보여줬을까 거기에 좀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나요. 하지만 제가 언제든지 텍스트를 쓸 때는 나사에서 했던 행적들 뒤에는 물음

표 하나를 붙여놓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작되었다는 설들이 제 작업에 힘을 실어 하나를 붙여놓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작되었다는 설들이 제 작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들에 제가 물음표를 해놓음으로써, 예를 들어 현재 나사의 'curiosity'라는 화성탐사선이 화성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음표라는 제스처만 취하고 단지 방법론으로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궁극적으로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운 : 헬리캠으로 공중촬영 한 것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사실 이런 과정이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장비부분에 관심이 가거든요.

윤병주 : 저에게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는 전부터 있었는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쉽사리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일 년전만 해도 헬리캠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었고요. 이것도 사실은 인공위성 사진을 찍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 더 재미있었겠지만, 그럴 경우 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되다보니 차마 시도를 못하곤했거든요. 그것을 하면 더 재미있었지만, 주기적으로 알아보던 중 촬영을 해주시는 분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원래는 100만원 이던 것을 50만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주 : 촬영본은 작가님이 해당 장면을 선택하신 건가요?

윤병주 : 먼저 제가 모든 포맷을 생각하고 설치를 진행해 놓은 후에 촬영기사 분들이 오셔서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모니터가 있어서 카메라가 잡는 영상을 지상에서 확인하면서 셔터를 누르는 것이지요.

박은주: 몇 장이나 찍으셨어요?

윤병주: 열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객 : 개 사진은 안 찍으셨나요? 방문하신 화성에서의 개 에피소드를 말씀해주시기도 했고, 우주에 개가 있는 것처럼.....

윤병주: 그 사진은 제가 예전 모델인 아이폰으로 찍었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어 두었었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텐데,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손을 올리면 개가 날 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물지는 않더라고요.

관객: 너무 완벽하게 속아서 내용을 깨닫지 못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힌트가 조금 있긴 했지만 익숙한 것을 배치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개가 진돗개라든지..... 재밌지 않았을까요?

신기운 : 저 옷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석회가루로 직접 그렸다고 하셨잖아요? 사막에 그림을 그리고 구글어스에 접속해서 자신의 작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한 작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구글어스에서 언제 우리나라를 스캔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윤병주 : 저는 구글어스는 아니고 네이버등의 국내 시스템을 알아보았는데요, 16일 주기로 한 번씩 촬영을 하지만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완공될 때까지 촬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촬영을 미리 해놓고 공사가 완공될 때 까지는 그 사진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사진들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한 5년 전 사진까지, 현재의 공간이 아닌 사진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의 원래 의도 자체도 여기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해서 위성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계획해보기도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힘들고 현재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었고, 이정도라도 제 의도에 맞게 보여주고 싶은 만큼은 충분히 구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예나 : 이 작업의 시작이 지역 명칭인 '화성'과 행성 명칭인 '화성'의 텍스트적 결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 시각적으로 비슷한 점을 찾아내었고 인공위성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모여 작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 지역의 이름이 화성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다면 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윤병주 :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제가 살았고, 지나가면서 느꼈던 것이 화성 같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처음 텍스트가 주어지는, 동음이의어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디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예나 : 다음 작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윤병주 :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시가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작업을 더 완성도 있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서부이촌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작업 제목은 '서부

개척시대'로 해서 서부이촌동에 관한 작업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서부이촌동은 참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어제 술을 마시며 가게 주인아주머니께 서부이촌동은 어떤 곳이냐고 질문을 드리니 '섬이죠.'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술집 아주머니의 시적인 멋진 대답을 들으며 역시 이 동네에는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벽면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글이 써져있고, 이번에는 좀 더 저돌적으로 도전해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관객 : 이전 작업에서도 그렇고 흰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사진을 의도적으로 찍을 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윤병주 : <우사단>에서 보이는 흰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객 : <우사단>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흰색으로 얼굴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의미를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윤병주 :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무슬림 남자들이 입는 옷은 대부분 흰색이고 이슬람 사원자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흰색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운동장에 라인을 그리는 것이 흰색이 유일했어서.....

관객 : 화성의 얼굴 사진에서는 색이 아닌 빛과 그림자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생각도 해보셨나요?

윤병주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헬리캠과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계형 작가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큼니다. 백색가루는 20Kg에 4천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만들면 더 멋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사람들의 삼리 작용이 중요했습니다. 똑같이 얼굴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얼굴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기호들로 사람들이 얼굴을 인식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까 이야기 했던 '파레이도리아'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단순화 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사람 얼굴을 천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야 너무 복잡해, 더욱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가다 보니까 마지막엔 제일 단순하게 기호가 된 겁니다.

관객 : 화성에 직접 안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화성 같다고 느낀 것은 거기서 보이는 이미지는 붉은 색이잖아요? 실제로 화성은 붉게 보이고..... 이 사진도 붉게 보이는 시간대에 찍으신 건가요?

윤병주 : 실제로 NASA에서 제공되는 사진은 빨강지는 않고 오히려 모래이미지가 있는 저 사진의 색채와 더 가깝습니다. 제가 빨간 색으로 만든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화성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화성 역시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요. 배경이 화성이었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아니면 좋은 시선들을 가졌을 때의 붉은 이미지들 그리고 '화'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들을 고려하여 제가 일부러 붉은 색으로 구현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주에서 주어지는 사진에는 대부분 이런 황토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경기도 화성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우주의 화성 이미지, 혹시 '토탈리콜'이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화성이 빨강게 나와요. 그들도 그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지점이 재미있으니깐 저도 색을 바꾸어 가면서 이미지를 그렇게 구현해 본 것이지요.

강석호 : 윤병주 작가가 말을 잘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잊었네요. 작업을 보러 오실 때에 윤병주라는 작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윤병주 그리고 <화성>, 윤병주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작업 <우사단>, 이것들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윤병주와 <우사단>이라고 했을 경우 우사단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것을 가지고 윤병주 작가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무엇을 제시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윤병주와 화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순간 분절되어 버립니다. 화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윤병주 작가가 무엇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단어가 갖고 있는 힘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더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윤병주 작가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과연 '윤병주'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윤병주는 무엇을 하기에 화성이나 우사단에 있을까?' 그리고 '사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림을 생각해보면 그림 안에 작가가 있나요? 사진의 경우에는 그 안에 작가가 있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림이나 조각 같은 예술의 영역에서는 작가가 서있는 위치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그림을 마주 보고 있다기 보다 그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사진가는 사진에 근접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분명히 작가는 뒤에서 바라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작가가 관심을 갖고 무엇을 찍어야 할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화가의 경우에는 이미 이미지를 놓고서 그 앞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사진가는 입장이 다르죠.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프레임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방 읽혀져 버립니다. 우사단은 그래도 쉽게 읽혀지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연성도 있고 어떠한 사건도 있고,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보고 아니면 본인이 우사단에 갔던 사람은 본인의 경험을 상상하던지 무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진이 갖고 있는 메리트겠지요. 하지만 화성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다르게 각자가 기억 속에 갖고 있는 화성이라는 단어에 의해 작동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두 작업이 매우 다르지만 작가가 항상 카메라를 놓고 뒤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병주 작가가 이야기 하는 중간에 자기 자신을 놓고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사단을 이야기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만한 반면 화성을 이야기 했을 때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사단은 본인이 빠져도 재미있거든요. 내가 빠져도 그 안에서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화성이라는 것은 화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무엇을 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시소처럼 조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윤병주 작가는 화성에게 먹혀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지금 사실 약간 먹힌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윤병주 작가보다는 화성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병주가 무엇을 했는지, 이 작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가 아니라 그냥 화성에 관한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전시에서는 그 부분에서 윤병주 작가가 실패를 한 것이지요.

허은경 :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전시를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들의 작품세계는 그 사람들이 일곱 살 때 놀던 시절이 그대로 튀어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윤병주 작가의 사진을 보니까 작가가 일곱 살때 공터에서 험하게 뛰놀던 게 그대로 보여서 '큰 놀이터에서 정말 행복하게 뛰어놀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윤병주 : 감사합니다.

박기현 : 개인적으로 꼭 이번 PT&Critic을 보러 오고 싶었었어요. 러시아 작가이며 미국으로 망명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유명해지신 분이 있는데 그의 설치 작품 중 중에 자기 방 안에서 <우주로 간 사나이>라는 설치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걸 고리세 그로이라는 독일 아트 크리티키자 철학자가 이를 다시 재조명 한 책을 읽어보면 작가가 소비에트라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한 개인이 상상력을 펼치면서 자신의 방 안에 우주에 관한 것을 재구성 하거든요. 저는 서울이라는 일상에서 화성이라는 낯선 곳으로 떠났을 때 좌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뭘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나사에 대한 우주 여행사처럼 탐험해 보기도 하고 비틀어 보기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올려다보기도 하는 젊은 작가니까, 경제 가치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비싼 헬리캠을 왜 빌리겠어요?, 헬리캠이라는 장비를 비싸게 사용하면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재미있고 재미있었어요.

농담으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남양주에 사시는데 제게 말장난으로 "미국의 남가주보다 살기 좋은 나라에 산다."라고 말씀 하세요. 서부 이촌동이면 미국의 와일드 웨스트거든요, 서부 지역에. 그렇게 아직 근대화 과정에서 할퀴어지고 남아있는 야생이 와일드 웨스트일 것 같아서 거기서 봤을 때 또 어떤 놀이터에서 자신의 성을 만들어낼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 빠져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본인의 경제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해 보고 다른 것들을 끌어내고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요. 저 작업도 재미있었어요. 화성이니까 화성에 있는 얼굴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모티콘을 이용한 가벼운 터치, 설령 야생의 장소일지라도 나는 미소를 던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반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반론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이 우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앞으로 꾸준히 재미있을 것 같은, 조그만 공간이 있다면 현미경 하나로도 재미있게 또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작가라는 생각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윤병주 : 감사합니다.

강석호 :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품이 실패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제 관심사가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술을 해야 되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윤병주 작가의 작업을 약간 그런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작업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보다 계속 '윤병주'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뭐하고 싶어 하는지, 뭐할건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지, 그런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작업 자체에 대한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간단히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자면, 예술이 하는 것이 뭐죠? 그냥 이미지 보여주는 건가? 아니면 전시장에서 뭘 하면 예술인건가? 미술관에서 뭘가 하면 예술인가? 예술 분야가 시각적 이미지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150년 전의 옛날 책이지만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본인의 경험, 인간의 경험을 보편화시키는 방법'을 예술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물론 옛날 얘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이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아마 요즘 내가 미술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회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이 경험한 것, 즉 작가가 화성을 경험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보여주는 방법적인 면에서 '화성에서는 뭘가 좀 더 했으면 좋았

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본인의 작업은 예술이에요, 과학이에요? 만일 이게 100년 전 사진이었다면 예술이라기 보다는 과학이잖아요, 옛날에는 사진을 기록 매체로 많이 썼었으니까. 지금은 그것 외에 더 많은 뭔가를 얘기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것도 예술이 갖고 있는 속성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우사단>에서 보다 이를 더 많이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병주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 작가가 스스로 작가가 되고 싶다고 그랬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그랬나요? 사진가가 아니라고 말했나요?

윤병주 : 음,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강석호 : 그래서 저는 윤병주가 단순한 사진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뭔가를 더 얘기하고자 한다고 생각했었던거예요. 윤병주는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속성 이외의 더 본인의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방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방법이 영상도 있고 설치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런 오브제도 있고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본인한테 적합한 방법은 또 무엇일까, 그것도 많이 궁금해요. 이 전시 공간에서의 작품들을 보면 서툰거나 하지가 않아요. 이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능수능란하게 참 잘하고 있거든요. 사진만 하는 작가들은 서툰 면이 없지 않는데, 이 작가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사진가로서의 위치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자체를 더 드러내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화성에 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공사장에 가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또 서부 이촌동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윤병주 본인이 쓴 텍스트를 간단히 읽어보면 본인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 이 화성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윤병주라는 작가가 카메라 앞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내가 약간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작가가 사라지고 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사단>에서는 보였는데 <화성>에서는 좀 아쉽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박상준: 저는 화성에서 채집한 오브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브제 말고 다른 작업에서는 화성에 피규어를 놓는다든지, 나사에서의 자료에 화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본다든지 등의 현실을 비트는 장치들이 눈에 띄는데요. 저 오브제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에서는 다른 작업에서 보았던 현실을 비트는 태도가 부재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윤병주 : 작업의 전체적인 기본 맥락에서 왜 이 오브제들을 들고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화성을 몇 번씩 가면서 느꼈던 것이지만 그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달랐어요. 중요한 것은 탐사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시즌도 있고, 이 지역에 비판적인 시선을 맞췄던 시즌도 있었어요. 이것들을 가져왔었던 때는 탐사에 포커스를 맞췄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탐사를 하다보면 제가 거기서 가져온 것이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일상적인 물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 보이는 깃발이라든지, 하이바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집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있는데 이들은 여기 있는 오브제 작업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 인거예요. 그런데 이 전시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어울리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플로우가 이렇게 이어지면 마지막에는 뭔가 현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오브제를 제가 직접 채집했다는 것, 탐사의 결과물, 그걸 한번 보여주는 게, 그래서 마지막 작업 사진에 제가 등장하는 게 이 지역을 탐사한 사람인 것이죠. 이를 증명사진관에서 촬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탐사의 결과물들을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제가 here를 탐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 그래서 여기서는 메시지는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탐사의 결과물로서 가져온 오브제인거죠.

윤석원 : 저는 방법은 유사과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태도는 놀이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전체 작업 중에서 제가 제일 맘에 들었던 것은 저기 공사 현장에서 합성이 아닌 직접 가서 석회가루로 그려서 제작한 작업이 진성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렇게 본인의 모습을 배치한 것 등 이 두 가지 작업이 없었으면 전체적으로 완성도 면에서 매끈해서, 아까 어떤 분이 진짜 속을 뻥 했다고 하셨는데,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사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루는데 너무 완숙해서 놀이가 놀이같이 보이지 않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허술하게 개입될 수 있는 요소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식의 작업을 또 한다면 본인을 더 노출시키는 방법으로서 작가가 일부러 붓질을 남기듯이 사진을 합성할 때 허술하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 하셨듯이 하이바라든지 개 사진 등을 더 편하게 노출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작가 분은 사진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병주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이 작업을 시작했던 시점이 4년 전이다 보니 그때부터 차근차근 변해가는 과정에서 저도 공부를 해 나가면서 느꼈던 바로 그런 것들 제가 여기서 노는 느낌, 원래 내가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에 광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RC car를 다루는 행위도 제게는 일종의 놀이인거죠.

사실은 제가 들어가는 장면도 많이 있어요. 제 작가노트에서 써 놓았지만 RC car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같이 놀게 되고 아저씨의 육성도 들어가고 아저씨가 조정도 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여기를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들고 있는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메시지나 개념 등을 완숙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